

8주차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04.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침몰이 사회적 참사로 진행된 당시 상황 • 부모와 희생자 자녀의 마지막 연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 등 진상규명 활동 과정 • 피해자들의 노력과 활동모습 	
학습내용	02. 진도의 혼란 상황	05.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직후의 진도, 안산의 상황과 피해자의 이야기 •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가족 모임이 만들어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의 특별법 촉구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세월호 참사의 피해 현황 	
	03. 유가족의 슬픔	06.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상황과 가족들의 심정 • 자녀 수습 과정의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향한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과 유가족의 삶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h2 style="margin: 0;">6차시</h2> <h1 style="margin: 0;">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h1>			

8주차 학습목표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학습목차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피해자 혐오와 비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유가족의 삶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향한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과 유가족의 삶 		

	
<h1 style="margin: 0;">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향한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h1>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언론과 정치권의 배 · 보상 부각

- 유가족에 대한 악성뉴스 확산
 - 보수논객에 의하여 혐오 표현 확산
 - 일부 정치인들이 참사를 부각하는 데 활용
 - 이후 언론기사 댓글에 반복하여 등장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언론과 정치권의 배 · 보상 부각

- 정치권의 배 · 보상문제 부각
 - 주호영 의원 교통사고에 비유 과잉보상에 대한 발언
 - 트위터에 특별법제정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언론과 정치권의 배 · 보상 부각

- 언론의 배 · 보상문제 부각
 - MBC에서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도
 - 2014년 6월 초부터 참사보상금 논란 확산
 -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과 비교하는 등 부정적 여론 확산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언론과 정치권의 배 · 보상 부각

- 정치권의 배 · 보상문제 부각
 - 2015년 4월 1일 정부 언론브리핑 추가자료 배부
 - 정부 예산과 관계없는 보험금액 포함 발표
- 참사 진상규명 전 배 · 보상 문제 부각 → 유가족에 대한 비난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언론과 정치권의 배 · 보상 부각

“모든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진상규명을 먼저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배·보상 기간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6개월에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진상규명하기도 전에, 시작도 전에 배·보상 신청 발표를 하고. 돈부터 주고 진상규명하자 이거잖아요. 순서가 분명히 초등학교들도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잘못됐다는 거. 그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출처01]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종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언론과 정치권의 배 · 보상 부각

- 유가족의 대응과 정부의 의견
 - 유가족 120명 이상 정부 배 · 보상에 대한 소송 진행
 - 정부: 소송에 대한 부정적 측면 강조, 배 · 보상 신청 독려, 부정적 내용의 보도자료 배부
 - ‘배 · 보상 등의 및 청구서 양식’ 상에 이의제기 금지 서약 내용을 반영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언론과 정치권의 배 · 보상 부각

“지나가던 사람 여기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다고. “어, 로또 맞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시민들을 봤다더라고. 봤을 때는 아, 이미 그 사람이 본 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상황 전후는 따지지 않고 돈만 보는 거. 그거 봤을 때는 가족들의 실망감들은 말할 수 없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상처도 받기도 하죠. 물론 돈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 생명을 놓고 돈으로 딱 저렇게 매겨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출처02]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종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교통사고’와 ‘그만하라’

-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단순사고’ 인식 확산
 - KBS 보도국장: 세월호와 교통사고 비교 발언
 -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다.”
 - ‘세월호는 교통사고’란 프레임 만들기
 - 정치인들에 의한 ‘교통사고’ 표현 확산, 언론의 집중 보도
 - 국회의원 개인 SNS를 통한 부정적 내용 게시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교통사고’와 ‘그만하라’

-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그만할 것을 강요한 정부와 정치권
 - 피해자를 향한 이념적 표현(빨갱이, 종북)의 등장과 언론 유포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교통사고’와 ‘그만하라’

“특별법 만들어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계속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과정들 지켜보시면서 언론의 힘도 있었고 약간은 언론이 어떻게 몰고 가는 부분도 있었고 정부에서 미적미적하니 저희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모 마음과 또 옆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배 · 보상 얘기 나오고, 그런 과정도 대리기사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아마 그 이후로 이런 여론몰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상 받고 끝난다는데 뭘 저렇게 더하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쯤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출처03]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행화』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과 유가족의 삶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

- 단원과,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
 - 참사 이후 2학년 교실의 유지, 참사의 아픔 공유
 - 2020년 4.16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이전 설치
 -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



2015년 2월 단원고에 걸린 현수막

[출처04] © 김아람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



2015년 2월 단원고 교실 풍경

[출처05] ©김아람 [출처06] ©김아람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

“재학생 부모님들 하시는 소리가 “우리 아이가 그런 몇 백 명이 죽어 나간 교실이 옆에 있는데서 무서워서 공부하겠나?” 이런,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 이 일에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서 바라보는 제3자 입장이었다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정말 내가 여지껏 우리나라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저 무서워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다, 분명히 나도.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출처07]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

근데 우리 세월호 이 사건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하는 걸 넓게 해주셨더라면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충분한 대화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2015년 2월 단원고 교실 풍경

[출처07]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출처08] ©김아람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

- 기억과 추모를 위한 노력
 - 재학생 교육 공간과 추모 공간의 분리 제한
→ 반대로 무산
 - 추모를 위한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노력
 - 2016년 안산 화랑유원지 조성 내용 확산
→ 주민들의 반대 고조



2019년 4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 앞 생명안전공원 반대 시위

[출처09] 4.16생명안전공원 친구들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

- 기억과 추모를 위한 노력
 -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월호 납골당 화랑유원지 결사반대”
 - 추모공원 조성여부 쟁점사업으로 부각 → 추모사업에 부담으로 작용
 -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 → 혐오 발언으로 확산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

“당연히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 이후로는 그냥 좀 삶 자체가 자꾸 드러 내면 안 되는 그런 삶, 웃기는 삶이 돼가는 거죠, 점점 더.
공인도 아닌데 공인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말도 막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거 같아요, 그런 것들.”

[출처11] 『그날을 말하다 - 도연 아빠 김기백』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

“참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랬어요.
‘유가족으로 산다는 건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이렇게 국민으로 취급을 안 해 버리니까 못 살겠다.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살기가 싫다.’
저희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진짜 정부에 대한 민낯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야. 어디를 가서든지 저희들은 세월호 유가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세월호 유가족은 국민은 아닌 거고 세월호 유가족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닌 거고, 세월호 유가족이기 때문에 쓰레기인 거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울먹임)”

[출처10]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엄마 배미선』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

“오래 살까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오래 살까봐.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오래 살면 좀 웃긴 거죠.
좀 약간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살아가는 방향을.
그전에는 어떻게 해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애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거 같은데,
뒷바라지 해주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거 같은데,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어, 없어져 버린 거 같아 자꾸만.”

[출처12] 『그날을 말하다 - 도연 아빠 김기백』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6차시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마무리

-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이야기

SOURCES



- [출처01]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세월 아빠 임종호』, 한울, 2019, 177쪽
- [출처02]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세월 아빠 임종호』, 한울, 2019, 176쪽
- [출처03]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경주 엄마 유병화』, 한울, 2019, 174쪽
- [출처04] © 김아람 (2015. 2. 단원고)
- [출처05] © 김아람 (2015. 2. 단원고)
- [출처06] © 김아람 (2015. 2. 단원고)
- [출처07]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경주 엄마 유병화』, 한울, 2019, 179~180쪽
- [출처08] © 김아람
- [출처09] 4.16생명안전공원친구들
<https://416parkfriends.modoo.at/?link=2e4dxsc9>
- [출처10]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세월 엄마 배미선』, 한울, 2019, 129쪽
- [출처11]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도연 아빠 김기백』, 한울, 2019, 197쪽
- [출처12]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도연 아빠 김기백』, 한울, 2019, 158~159쪽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